

# 자원봉사 책,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가

단순한 방법 안내가 대부분... 연령·능력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해야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이 교과과정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서가 우후죽순처럼 출판되고 있다. 자원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이론편부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하는 길라잡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출간된 청소년 자원봉사에 관한 책들은 몇가지 생각해볼 사안이 있다.

## 성인의 시각에 맞춘 책이 대부분

첫째로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책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고등학생 봉사활동을 안내하는 책중에서 가장 눈의 띄는 것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이다. 이 책은 5·31교육개혁 이전에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서로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인식·이해·실행·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책은 중고등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는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여성개발원은 《청소년 봉사활동》이란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두권을 제외하면 자원봉사에 관한 책은 대학생이나 성인을 위한 책이 대부분이었다.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이 발간한 《대학의 사회봉사》는 대학사회에 자원봉사의 돌풍을 몰고왔다. 이 책은 대학생에게 사회봉사를 왜 해야 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는 이론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대학생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몇 년동안 중앙일보사의 '자원봉사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중앙일보사는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을 엮어서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길(상, 하)》을 내고, 이어서 《청소년 자원봉사와 지도》를 출판하였다. 이 책들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나 실무자를 위한 책이다.

이처럼, 책이름에서 '청소년'이란 낱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눈높이보다는 성인의 시각에 맞는 책 중에는 김동배와 조

## 청소년 자원봉사에

관한 책들은 몇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사안이 있다.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이 고려된 자원봉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

둘째 봉사경력에 적합한 수준의

활동이 안내돼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눈높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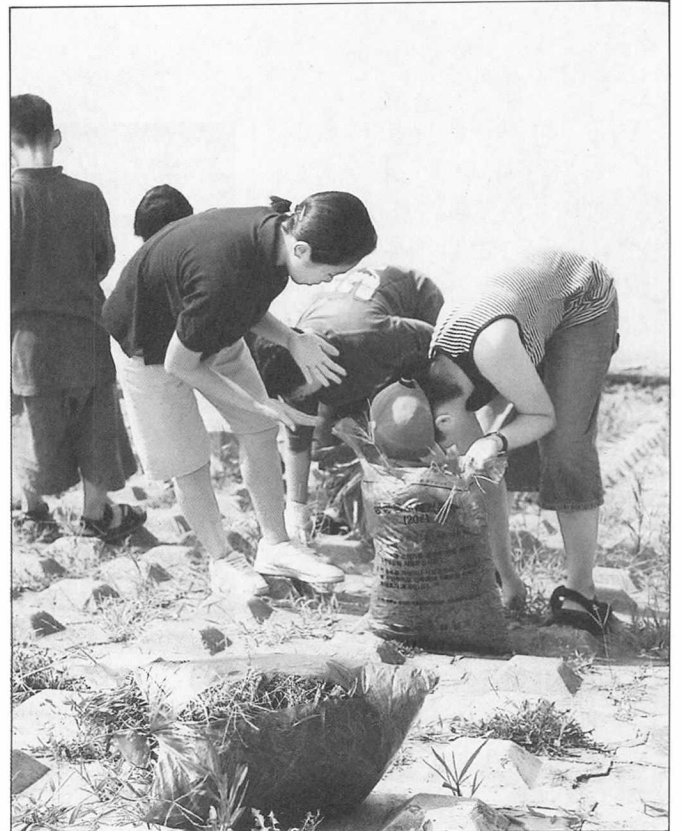
청소년의 입장에서 개발돼야 한다.

학래가 함께 쓴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동인)가 있다.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지침서는 별로 없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나 실무자를 위한 책들이 여전히 많다.

둘째로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정에 맞는 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수백만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연간 40시간씩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관련서적들은 일천여곳에 불과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일손을 돕는 봉사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임병해가 엮은 《사랑의 손길 기쁨의 발걸음》(진리와 자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을 안내했다.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이름, 사업목적, 사업내용,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방법 등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후원과 일손돕기를 장려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은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안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읽기 쉬운 책 중에는 남승희가 엮은 《아가들아! 그런 부모라면 그리워하지도 울지도 말라》(학지사)가 있다. 이 책은 과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귀찮고 두려운 봉사활동을 마치고 쓴 진솔한 체험기를 엮은 것으로, 짧은 이야기들은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

이러한 출판 경향에서 볼 때, 이용교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모습.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혜연이 함께 쓴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서울미디어)는 중고등학생이 학교, 복지시설, 동네, 자연속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자세히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중고등학생들이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산과 들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또한, 청소년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과 사례도 풍부히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 단순한 이론과 방법안내는 지양해야

최근에 나온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 책들을 분석해 볼 때, 자원봉사를 이론적으로 안내하거나 단순히 자원봉사의 방법만을 안내하는 책들은 지양돼야 한다. 아울러, 다음 몇가지 점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 등이 고려되어 자원봉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의 발달단계와 교과과정이 다르듯이 봉사활동에 관한 책도 청소년의 연령과 능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봉사경력에 맞게 초급·중급·상급 수준의 봉사활동을 안내해야 한다. 봉사활동의 의의와 종류를 개략적으로 안내하는 책부터 특정 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서적까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맹인의 나들이를 안내하는 봉사활동과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일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라 배움의 실천이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눈높이와 청소년의 입장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자원봉사를 지도하려는 책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의 내용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컴퓨터, 외국어 등을 활용한다면 정보화와 국제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청소년 봉사활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교육적인 책들이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책'과 함께 '청소년에 의한 책'이 널리 만들어져서 청소년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자원봉사는 청소년이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